

각국 정상, 문 대통령에 코로나19 문의 쇄도

민주 이해찬 대표
비례연합 지원사격

캐나다 트뤼도 총리 통화까지 감염병 통화만 10차례

트뤼도 “한국으로부터 코로나19 방역 배우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방역 협력을 하고 싶다는 각국 정상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3년 전인 2017년, 문 대통령 당선 이후 정상들로부터 정상회담 요청이 쇄도했던 때를 방불케 하는 모습이다.

그때는 일종의 ‘상경례’ 성격이었다면 이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도움이 손길을 요청하는 것이라 사뭇 다른 양상이다. 미국은 물론 유럽, 중동까지 ‘한국형 진단키트’ 수출을 요청하고 있고 방역 노하우를 공유받기 위해 수화기 경경을 벌이고 있다.

26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정상통화를 끝으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관련 정상 통화만 총 10차례를 소화했다. 지난날 20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통화를 시작으로 한·이집트 정상전화(3월5일), 한·아랍에미리트(UAE) 정상전화(3월5일), 한·터키 정상전화(3월6일), 한·프랑스 정상전화(3월13일), 한·스웨덴 정상전화(3월20일), 한·스페인, 한·사우디, 한·미 정상전화(3월24일)를 거쳤다.

코로나19 관련 정상 통화 다수가 상대방의 요청에 따른 것인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집트와 아랍에미리트, 터키 정상과의 통화는 코로나19로 순방이 무산되면서 양해를 구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그러나 통화에서는 주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국제 공조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 왕세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국의 수준 높고 적극적인 방역 조치와 뛰어난 역량을 깊이 신뢰한다”고 평가했다. 압델 파타 알 시시 이집트 대통령은 “한국은 세계적으로 위상이 높은 나라인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그것이 잘 드러났다”고 했다. 레셀 타이이트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코로나19를 종식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프랑스·스웨덴·스페인·사우디아라비아·미국과의 정상 통화는 상대측 요청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투명하고 효율적인 방식을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있는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며 “프랑스도 한국이 성공적으로 취하고 있는 조치의 우수성과 그 방식을 배우고 경험을 공유하고 싶다”고 말했다. 스테판 뤼벤 스페인 총리는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 사례로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전화 통화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의 정상 통화는 우리 측의 요청으로 성사됐다. 외교 일정이 취소되면서 양해를 구하기 위한 차원이었으나 스페인 측에서 더 빨리 통화하고 싶다는 의사 전달이 있었다는 게 당국 관계자의 설명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 통화도 미국 측의 긴급 제안으로 성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의 코로나19 대처를 위해 의료장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가”라고 요청하기까지 했다. 2017년 7월 문 대통령의 첫 정상외교

무대에서는 각국 정상들로부터 정상회담 요청이 쏟아졌다. 당시 회담을 요청한 곳은 20여개 국이었고 그중에는 현장에서 예정에도 없던 일정이 추가되기도 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독일·중국·일본·러시아 등 9개 국가 정상들과의 양자회담과 유엔사무총장 등 정상급 인사들과의 개별 회동 등 외교 강행군을 벌였다. 다만 이번에는 한국과 방역 협력과 관련한 ‘더블’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청와대 내부에서도 다소 고무된 반응이 감지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국 진단키트 등 의료 장비들에 대해 각국의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방역 경험 등 각종 노하우들의 공유를 원하는 것 같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도 전날 진단키트와 방역 장비 수출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김부겸 외교부 장관의 지지를 표명하는 등 힘 살기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신속한 진단키트와 개발로 감염병 대응의 첫 단추를 잘 끼워 주셨기에 가능했다”며 “이미 많은 물량을 해외로 수출하여 세계 각국의 방어에 기여하고 있다”고 호평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여러분 업체들의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대통령과 정상통화를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트뤼도 총리는 통화에서 “과학에 기반하고, 메르스 때의 경험을 살린 한국의 대응은 국민 안전에 성과를 내고 있으면서도 의료체계에 지니친 부담을 주지 않고 있다”며 “한국에서 이뤄진 광범위하고 빠른 검사, 접촉자 추적은 매우 중요하다. 한국으로부터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현재의 국내 코로나19 대응 상황에 대해 상세 설명하면서 “방역과 치료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임상 데이터를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할 의사가 있다”고 화답했다. /뉴시스

25세 넘은 병역미필자도 복수여권 발급

앞으로 25세 이상 병역미필자들도 해외여행 시 1년짜리 단수여권이 아닌 5년짜리 일반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발표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청년들로부터 정책 제안 580여건을 받았으며 ▲생활 지원 ▲참여·권리 ▲일자리

정부, ‘청년의 삶 개선방안’ 발표… 알뜰교통카드 할인 등 선정

▲ 주거 ▲ 교육 등 5개 분야에서 우선 정책화할 수 있는 과제 34개를 선정했다.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확대를 위해 알뜰교통카드 시행지역을 기존 13개

시·도 총 88개 시·군·구 2만명에서 13개 시·도 총 101개 시·군·구 7만 명으로 늘렸다. 알뜰교통카드는 이동거리 800m당 250~450원을 적립해 교통비 월 1만

~2만원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에게 800m당 100~200원 추가 적립 혜택도 부여하기로 했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사업 대상을 기존 25세에서 34세로 확대하고, 대출한도

도 3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했다. 도심지 주거 지원을 위해 사업 단가를 기존 95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인상해 역세권 등 고시원을 리모델링해 공급하기로 했다. 학자금 연체이자 감면 분할상환제도 확대로 연체금리를 기존 0~9%에서 0~2%로 개선하고, 전문대학생 등 전문기술인재 장학금도 신설한다. /뉴시스

4·15 총선 후보자 이모저모

김윤덕, 후보 등록 후 방송사 합동토론회 참석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후보(전주갑)는 입후보 등록 첫날인 26일 완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찾아 후보등록을 하고 방송사 합동토론회에 참석했다.

후보등록 후 김윤덕 후보는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직하게 열심히 선거운동에 임할 것이며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더불어민주당의 맨 앞에 집권여당의 합치는 재선의원 김윤덕이 서서 문재인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키고 전주와 전북을 혁신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CBS전북방송과 티브로드전주방송 합동 주최로 열린 첫 번째 토론회에서 김윤덕 후보는 “코로나19 방역과 치료의 현장에서 땀 흘리는 수많은 공무원, 의료인, 소방관, 경찰관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이 계셨기에 이런 칭찬이 나오고 있어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면서 “정부와 여당을 믿고 조금만 더 함께 힘을 모은다면 ‘코로나19’를 반드시 조기 종식시키고 평화로운 과거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특별취재반

조배숙 “n번방 근절법 마련할 것”

민생당 조배숙 후보(익산)가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뿌리 뽑기 위한 ‘n번방 근절법’ 마련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조 후보는 “최근 n번방·바시방 사건은 문명사회에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범죄”라고 규정한 뒤, “특히 우리나라는 2018년 다크웹에서 아동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했던 손중우가 겨우 1년 6개월 형을 받을 정도로 관련 범죄의 처벌 수위가 낮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 후보는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을 무시하고 성적 대상으로 보는 범죄행위는 천인공노할 만행”이라고 규정하고, “성매매금지특별법 제정으로 성매매를 당연하게 여기던 풍조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법안”이라며, n번방 사건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인정한 경우 신고 의무 부과 △온라인상 아동·청소년 성범죄 수사 전담 기구 설치 △불법 성착취영상물의 제작 배포 제공 등을 조장하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 △양형기준 상향 등을 제시했다. /특별취재반

윤준병, 후보 등록 마치고 선거운동 시작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후보(정읍·고창)가 26일 오전 제2대 총선 출마를 위해 선관위에 정식후보 등록을 마치고 공식 후보로서의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등록을 마친 윤 후보는 “투표를 20일 앞두고 정식후보가 됐다”며 “다시 신발 끈을 고쳐 매고 서민 속으로 들어가겠다”며 결전의 의지를 다졌다. 윤 후보는 이에 앞서 지난 25일 오후 3시 정읍시 연지동에 위치한 윤준병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선거대책위원회를 겸하는 ‘코로나 극복 비상지역위원회 상경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총선 본선 체제에 돌입했다. 그는 “‘코로나 극복 비상지역위원회’ 구성은 세계 경제 불황의 여파로 우리나라 역시 긴축재정 등으로 경제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까지 겪으면서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 대한 대응조치다”면서 “향후 선거와 관련한 회의 역시 최소화해 운영해 가면서 코로나가 극복되면 선대위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특별취재반

이강래, 남원선대위 임명장 수여

이강래 더불어민주당 남원임실순창 후보는 최근 남원지역 선거대책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하고 4.15총선에서의 승리를 다졌다.

이날 수여식은 최근 정부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발맞춰 규모를 대폭 축소해 선대위 일부만 임명장을 수여하는 약식으로 개최했으며, 체온 측정과 손소독제를 사용하고 마스크 미착용시 출입을 제한했다. 남원지역 선대대책위원장은 윤지홍 남원시의회 의장, 이석보·형병욱·김홍례·장종환·정준식 등 전 남원시의회 의장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됐으며, 선대위에 총괄본부, 조직본부, 총무본부, 정책본부, 대변인단 등으로 구성됐다. 이 후보는 “조선에서 조선으로 이어지는 8년간 지역은 정체되어 있고, 각종 현안은 무산되거나 표류하고 있다”며 “조선에서 힘있는 여당 중심으로 선수를 교체해 꼭 지역발전을 이뤄내자”고 강조했다. /특별취재반

이용호, TV 토론회 거부 상대후보 규탄

이용호 의원은 오는 4월 2일 진행될 예정이었던 KBS TV 토론회, JTV 토론회에 A 후보가 연거푸 불참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이는 민주주의 최대의 흑역사 선거를 망치는 비민주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따르면 KBS 토론회는 방송 편성자체가 무산됐고, JTV 토론회는 A 후보를 제외하고 진행될 예정이며, A 후보는 선거운동기간 중 4월 8일 법정토론회에 한 차례만 참여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유권자를 무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가로막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이 의원은 A 후보는 민주당 경선 당시 먼저 공개토론회를 제안한 바 있다며, 이를 거부당하자 상대후보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토론회 참여를 재촉하기까지 했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조용하고 깨끗한 정책선거를 하겠다면서 TV 토론회에 불참하는 것은 스스로 부실한 후보임을 인정할 셈이라며, 상대 후보에게 토론회 불참 의사를 접고 유권자 앞에 정당하게 나오기를 촉구했다. /특별취재반

이원택, 후보 등록 후 부산 전통신장 찾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후보(김제·부안)가 4.15총선 후보로 등록을 마쳤다. 이 후보는 26일 김제시선거관리위원회 회를 직접 찾아 후보등록 서류를 제출했다.

이 후보는 “최근 n번방·바시방 사건은 문명사회에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범죄”라고 규정한 뒤, “특히 우리나라는 2018년 다크웹에서 아동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했던 손중우가 겨우 1년 6개월 형을 받을 정도로 관련 범죄의 처벌 수위가 낮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을 무시하고 성적 대상으로 보는 범죄행위는 천인공노할 만행”이라고 규정하고, “성매매금지특별법 제정으로 성매매를 당연하게 여기던 풍조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법안”이라며, n번방 사건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인정한 경우 신고 의무 부과 △온라인상 아동·청소년 성범죄 수사 전담 기구 설치 △불법 성착취영상물의 제작 배포 제공 등을 조장하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 △양형기준 상향 등을 제시했다. /특별취재반

김중희, “좋은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

4·15 총선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26일 오전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국회 김중희 의원(김제·부안)이 김제시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 서류를 제출했다.

김 의원은 김제시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 서류를 제출하며 “정당인을 보고 몰까마 투표를 할 것인가? 지역발전의 책임자를 뽑을 것인가? 결정하는 선거”라며 “유권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정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제와 부안이 부흥하기 위해서는 속도전을 통해 새 만민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고, 수산업을 살려야 하는데, 친환경과 수산업을 동시에 살릴 유일한 대안은 새만금의 즉각적인 해수유동”이라는 지역비전을 제시했다. 김 의원의 대표 공약으로는 ▲KTX전북혁신역 신설 ▲부창대교 건설 ▲모악산 도립공원 공원계획 축소 등이 있다. /특별취재반

임정엽, 토론회 불참 상대 후보에게 참석 촉구

무소속 임정엽 후보(완주·무주·진안·장수)는 토론회 불참 의사를 표명한 안호영 후보에게 참석을 재촉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임 후보는 “26일 ‘빠놓은 당선! 토론회 불참! 후안무치의 위선적인 후보는 정치에서 퇴출돼야..’ 한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지역구가 넓어 토론회에 참여할 시간이 없다는 가당찮은 이유로 지역 언론사들이 주최하는 토론회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면서 ‘민주당 심정인 전북 도당위원장 직책까지 맡고 있는 공인이 비겁한 뒷모습을 보이며 도망가는 인물, 측은하기만 하다’고 지적탄을 날렸다. 임 후보는 “자신의 지난 선거와 관련된 금품사건, 사망사건, 불법 폐기물 관련된 사안이 들춰질까 그렇게 무서웠다”면서 “민주당이라는 방패에 숨어 당선되지만 기다리는 소인배 위선자에게 이 소중한 땅을 맡길 수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안 후보는 유권자에게 당선돼야 할 이유를 설명해야 마땅하다”고 토론회에 나서길 재차 촉구했다. /특별취재반